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지난 2018년 11월 15일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은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언문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포함하여 진화 역사와 성경을 섞어서 이론을 펼치는 모든 타협이론 주장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각 기독교 교단, 신학자, 목회자들이 타협이론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성경적 창조론 선언문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드셨다는 창조의 사실을 믿는다. 근대에 등장한 진화론은 어떠한 모양으로 개진된 것이든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창조론과 어긋난다. 최근 해외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 또는 '진화적 창조론'이 대두하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신학자들의 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목회자들의 성경 이해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을 이어가야 할 다음세대의 복음 이해도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진은 이러한 현상을 심히 우려하여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성경의 교훈에 일치된 창조론을 천명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 안에서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창세기 1~3장을 비유적이거나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창세기 1~3장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다.

2. 창세기 1~3장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인하면서 지구상의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진화론적 결론을 임의로 도출해 내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은 창세기 1~3장을 역사적 사실로 믿었으며,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가 오류가 없는 진실임을 말한다(마 19:4~6, 23:25; 눅 3:38, 11:51; 행 17:26; 롬 5:14; 고전 11:8, 15:22·45; 딤후 2:13~14; 유 14, 참고구절 히 11:1~7, 12:24; 벧전 3:20; 벧후 2:5; 요일 3:12; 유 11)

3. 창조와 복음에 관한 성경의 올바른 전통적인 신학을 허무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에 대한 신앙은 성경의 계시에 일치하며,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 부합한다.

4. 무작위적인 무방향의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해 생명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을 배격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창 1장)

5.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선행인류에게서 육적인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이라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다. (창 1:26·27; 2:22)

6.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선행인류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로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는 순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로 죄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창 3:6)

7.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도 죽음은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며, 아담과 하와 이전의 생물학적 조상인 선행인류도 죽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죽었다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창 2:17)

8.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식물과 동물)가 최초의 생명체인 어떤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출현하였다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창 1:12·21·25)

9. 식물, 동물, 사람이 지구에 등장한 이후에도 새로운 생물의 종류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시는 그 이상의 창조 활동은 하지 않으셨다. (창 2:2)

10. 세계의 생존 환경이 본래에도 지금과 같았다는 유신 진화론의 주장을 배격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본래는 "(심히) 좋은" 것이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창 3:18·19)

유신 진화론은 성경의 창조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인간의 타락과 원죄,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와 부활, 재창조 등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복음과 교리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뿌리째 부인하는 유신 진화론은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속한 많은 이들이 성경의 교훈에 근거한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이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진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신 진화론이 주장하는 가르침들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사상에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신학계와 교회에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신학교와 교회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창조의 교리를 소중히 간직하여 지금 세대는 물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이 교리를 충실히 가르칠 책임이 있음을 엄숙히 확인한다.

2018. 11. 15.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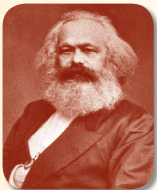


## 공산주의

20세기 들어와서 지구상에 공산주의(Communism) 사상으로 진통을 겪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사상을 시도했던 결과는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에 대하여 다시 논한다는 것이 새삼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진화론이 인류 역사에 또 다른 각도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짚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와 진화론의 연관성은 이를 이끌었던 리더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뿐만 아니라, 같은 사상을 따르던 공산주의 리더들은 진화론을 전적으로 믿고, 이를 기반으로 혁명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진화론적 무신론 철학에서 나온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으로 사회와 국가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때마다 수천 만의 목숨을 앗아갔다. 20세기 동안 공산주의 혁명의 시작과 과정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은 1억 명이 넘는다. 사망자로 볼 때 1, 2차 세계대전 보다 훨씬 많은 수이다.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이 출판되기 이전에도 마르크스와 같은 생각의 급진주의자들이 있기는 했지만(실제로 공산주의(communism)란 단어는 '종의 기원' 출판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당시 사회는 종교적 신념이 훨씬 우세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전달되기는 힘이 부족했다. 그러나 '종의 기원' 출판 후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에 나왔다는 선부른 판단으로 인해 이에 파생된 공산주의에 대한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 공산주의 건설에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며 진화론과의 그 연관성을 살펴본다.



칼 마르크스(Karl Marx, 독일, 1818-83)

공산주의동맹의 창설자이며(1847)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1824년 루터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대학에서 다윈의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윈의 '종의 기원' 책을 접한 후에 '적자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동식물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투쟁'이 주로 사회 계급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확신했다. 역사학자인 바준(Jacques Barzun)은 '진화론자들이 지질시대 대표를 보며 시대를 단계적으로 구분했듯이 그는 인류 역사를 진화의 단계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Barzun, J., Darwin, Marx, Wagner: Critique of a Heritage, 2nd Edition, Doubleday, Garden City, New York, p. 8, 1958.)



실제로 마르크스는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책을 읽고, 자신의 절친인 엥겔스에게 "우리의 견해에 자연사의 기초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1861년에는 독일 노동자협회 창설자인 라살(Ferdinand Lassalle, 1825-64)에게 "다윈의 책은 매우 중요하며, 역사에서 계급 투쟁을 위한 자연선택의 기초로서 나를 돕는다"고 했다. 그는 '다윈의 불독'이라 불리는 진화론자 헉슬리(Thomas Huxley, 영국, 1825-95)의 강연에 참석하며 그 책의 엄청난 의미에 대해 긴 시간 토론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책 자본론(Das Kapital, 1967)을 다윈에게 바치기를 원했으며, 진화론자의 대부격인 굴드(Stephen Jay Gould, 미국, 1941-2002)는 자본론의 첫 사본에 자신을 '다윈의 진실한 추종자'로 묘사했음을 언급한 적이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중심 문제를 '생산 수단을 통제했던 계급(소유주, 부유층 또는 부르주아)'과 '실제 물리적인 일을 한 계급들(노동자, 농민 또는 프

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불일치로 보았다. 그는 진화론의 생존경쟁 개념을 이 두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이때 공산주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세계 노동자가 단결하여 압제자를 전복시킨다”는 그의 유명한 문구로도 이해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사업주나 기업가와 투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소유주보다 더 많기 때문에 결국 폭력 혁명으로 기업가들을 전복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이어서 사유 재산이 폐지되며,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국가를 소유할 것으로 믿었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의 결실로 동등하게 나눠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는 계급 사회를 만들 것이다’는 그의 철학 대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한 국가는 토지 소유자, 부유층, 실업가 등의 재산은 강제로 회수했다. 그러나 이때 재산을 빼앗긴 상당수는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사업 결정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자들이다. 이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곧 노동자들은 한때 자신들이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불렸던 회사와 공장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 근로자 중 상당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개인적 자질이 부족했기에, 공산주의 국가는 낮은 생산성의 열등한 제품과 엄청난 양의 낭비가 일어났다. 결국 그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었고, 주위 나라들에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진화론은 마르크스를 통해 공산주의로 알려진 새로운 무신론적 세계관을 발전시키도록 고무시킨 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세계관이 ‘과학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다윈의 책을 거의 숭배하였으며, 특별히 비물질적인 신과 같은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다윈의 자세를 존경했다. 이런 사상적 일치 때문에 독일 사회주의 서점에는 많은 경우에 다윈과 마르크스가 했던 문구가 나란히 붙여 있었다.

마르크스는 종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부자의 마약과 같은 도구라고 결론 지었다. 평화, 비폭력, 이웃 사랑을 강조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기본만 좋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해결책은 종교를 폐지하는 것이었으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나 기업가와 같은 압제자에게서 벗어나야 하며 이는 무력적인 투쟁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약인 종교를 먼저 빼앗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의 이론을 좇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종교 핍박이 뒤따랐다.



엔겔스(Friedrich Engels, 독일, 1820–95)

엔겔스는 마르크스의 여러 책을 함께 공저했던 가까운 동료이다. 그는 엄격하게 성경을 믿는 아버지에 의해 자랐지만 베를린 대학시절부터 기독교를 거부했다.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엔겔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다윈이 유기적인 자연에서 진화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론을 발견했다”.



히르젠(Alexander Herzen, 러시아, 1812–70)

히르젠은 러시아의 신 급진주의를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인데, 그의 사상은 마르크스의 것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공산주의 권력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반란을 촉구하는 선구자였다. 그의 저술은 진화론적 해석을 담은 생물학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의 저서에 관한 글을 포함한 진화론적 글도 있었다.



레닌(Vladimir Lenin, 러시아, 1870–1924)

레닌은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혁명 리더이다.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독실하게 성서를 믿는 부모님에 의해 양육되었으나, 1892년에 다윈과 마르크스의 글을 읽고,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특히 러시아의 부당한 교육제도로 신앙인인 아버지의 신분보장이 취소되고 1년 후 사망하면서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는 공산주의로 향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의 철학은 자연선택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움직였다. 레닌의 사무실에는 종의 기원 책과 진화의 상징인 원숭이와 인간 두개골이 있었다. 레닌은 본래 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떤 대책을 정할 때는 많은 사살 명령을 내렸다.



스탈린(Joseph Stalin, 러시아, 1878–1953)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권력자였던(1924–1953) 스탈린은 재임 동안 약 6천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독재자이다. 그는 한때 신학 대학원생이었으나 다윈을 읽기 시작했고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후 열렬한 무신론자가 되어 동료 신학생들에게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유인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질시대표를 만든 라이엘, 다윈 등의 진화론 관련책을 읽고, 이어서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의 공산주의 책을 읽었다. 그는 동료들에



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무신론자로 바뀌는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그의 영향으로 주위 동료들은 성경적 접근을 무시하고 유물론적 사고로 바뀌었다. 그는 신학원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료들에게 진화론적으로 해석된 지질학, 고고학, 천문학, 원시 문명 등의 책을 빌려줌으로 마르크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심어주었다.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소련의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러시아에서 다윈은 지적 영웅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모스크바에는 화려한 다윈 박물관이 있다.

### 아시아 공산주의

진화론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마오쩌둥(중국, 1893-1976)은 진화론을 중국 사회주의의 기초로 간주했다. 마오쩌둥의 정책으로 인해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캄보디아 공산주의 리더 폴 포트(Pol Pot, 캄보디아, 1925-98)는 적자생존의 신봉자로서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을 살해했다. 이때 살해된 자들은 대부분 의사, 사업가, 교사, 주지들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들로 전락되었다. 그 밖에 베트남, 북한에서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숙청이 이루어졌다.

### 정리

다윈이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단순한 한 유기체에서 유래했다'는 믿음은 근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중 하나가 공산주의 발전과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이다. '종의 기원'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공산주의가 번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스탈린, 마오쩌둥과 같은 공산주의 리더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때 20세기 100년 간 1억이 넘는 대량학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론적 개념에서 기본 바탕이 세워진 공산주의는 투쟁에서 폭력 혁명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 (Alexander Solzhenitsyn, 러시아, 1918-2008)이 6천만 명을 죽게 한 공산주의 혁명 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함축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이다.”

앞서 다루었던 성적타락, 이혼율 증가, 낙태, 인종차별, 학교총기사건, 나치와 히틀러뿐 아니라 이번엔 다른 공산주의도 따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의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데 성경과 상반되는 기원과 역사를 가르치는 진화론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포함한 타협이론들은 한결같이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자연선택, 적자생존과 같은 진화 과정을 허용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도 짓기 전에 이런 잔혹한 일을 묵인하신 것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범 되신 창조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크리스천은 공산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고 앞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에 진리를 가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전 1:19, 20) 지혜의 참 근원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뿐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 참고문헌

Bergman, Jerry, The Darwinian Foundation of Communism, Journal of Creation 15, no 1 (April 2001): 89-95.

Humber, Paul, Stalin's Brutal Faith, Acts & Facts,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October 1987.

Silvestru, Emil, Communism and Capitalism both fear Creationism, CMI, August 2007.

Grigg, Russell, Stalin: from choir boy to communist butcher, Creation 31(1):52-54, December 2008.

## 이재만 부회장 한국 방문

지난 2018년 11월 한 달간 이재만 창조과학선교회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인도하고 귀국했습니다. 성남금광교회(담임목사 김영삼), 서울금광교회(장금석),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교사회, 서진교회(백철호), 전주목원교회(권대호), 대림교회(송대현), 서초방주교회(반태호), 인천광음교회(김동기), 인천송현



전주목원교회 세미나

성결교회(조광성), 은누리교회(이재훈) 등 교회 뿐 아니라, 한동대학교, 햇빛트리니티 CEO스쿨, 헤브론선교대학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랜드, 전주 여성경 등 학교와 단체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각 세미나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 기록대로 행하신 증거를 나누었으며, 또한 진화론이 등장함으로 교회 안팎에 등장한 영향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등장한 타협이론에 대한 내용은 주된 주제였습니다.

## 창조과학탐사로 가득 찬 2019년

2019년 역시 창조과학탐사로 스케줄이 뻥뻥합니다. 1월 첫 주 20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를 시작으로 30회 이상의 창탐이 스케줄 되어있습니다. 각 창탐마다 참석자들이 성경을 확신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열매와, 인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 10기 ITCM 개강

12월 22일부터 7주간 10명의 훈련생들이 ITCM(창조사역 집중훈련)에 돌입합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7명의 강사진이 출동하여 각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훈련생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넘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과 지식이 갖추어 지기를 기도해주시시오. ITCM을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방주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장면





## 세속적 과학자들이 공룡의 갑작스런 출현을 인정한다

ICR 과학자들은 대중적인 견해와는 달리 화석들은 진화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최근 공룡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것을 확인했다.

이탈리아의 공룡 발자국과 화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과학자 팀은 공룡이 약 2억 4천 5백만년 전에 진화했지만 약 1300만년 후인 약 2억 3천 2백만년 전 “공룡 다양화 사건” 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드물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 연구의 주요 필자인 브리스톨 대학(University of Bristol)의 마시모 베르나디(Massimo Bernardi) 박사는 “우리는 오랫동안 [이탈리아 북부의 암석 지층]의 발자국들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공룡이 전혀 없는 층에서 ‘모든 공룡들이 있는 층’의 변화가 얼마나 분명히 보여지는지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명백한 변화는 화석이 공룡의 진화를 설명하는 증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움” 뿐이다. 이런 공룡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바로 창조과학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공룡들을 “그 종류대로” 생육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창1:24-25), 공룡들은 단순한 생물이나 어떤 다른 생물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의 퇴적암층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화석들은 창세기 대홍수 심판 때 매몰된 생물들의 잔해인 것이다. 또한 공룡 화석들은 전 지구적 대격변으로 인해 해양생물들의 화석들과 섞여서 자주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공룡이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소위 공룡 조상에 관한 화석의 증거는 전무하다고 인정한다. 존스홉킨스대학

(The Johns Hopkins University)의 공룡 전문가인 데이비드 위샴펠(David Weishampel)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룡에 대한 화석 기록을 읽었을 때 그 어떤 공룡 종에 대하여도 직접적 조상이 발견된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 공룡 조상에 관한 나의 목록은 공허한 것이다.”

그러나 공룡으로 진화하는 생체체에 대한 증거의 부재도 세속적 고생물학자들로 하여금 어떤 공룡이 새라고 하는 다른 생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폐와 같이 조류와 파충류 사이의 엄청난 해부학적 차이는 이러한 입장에 매우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며 “깃털 달린 공룡들”과 같은 주장도 그저 의심스러울 뿐이다.

마찬가지로, 세속적 공룡 이야기에는 6천 6백만년 전, 유카탄 반도에서 있었던 거대한 운석충돌에 의해 멸종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같은 다른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팀 클레어리(Tim Clarey) 박사의 연구는 만약 그러한 충돌이 칙술루브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은 것이었으며, 칙술루브의 지질학은 소행성 충돌을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클레어리 박사의 연구는 대홍수 이전의 지형과 왜 북미 대륙의 공룡 화석들은 미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암석과 화석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다윈주의적 진화의 증거들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성경적 창조의 증거들을 강화시킬 것을 온전히 기대하고 있다.

Jake Hebert, Ph.D. ICR / 번역 : 이충현

### 참고문헌

1. Gish, D. T. 1992. *Evolution: Challenge of the Fossil Record*. El Cajon, California: Master Books.
2. Bernardi, M. et al. 2018. Dinosaur diversification linked with the Carnian Pluvial Episode. *Nature Communications*. 9 (1499): 1499.
3. No author cited. Dinosaurs ended—and originated—with a bang! Science Daily. Posted on sciencedaily.com April 16, 2018, accessed April 18, 2018.
4. Although secular geologists adamantly deny that the sedimentary rocks are from the Flood of Noah, they do not deny that most sedimentary rocks are water-deposited. In fact, one secular geologist told me years ago in a personal communication that 90-95% of the world's sedimentary rocks are water-deposited.
5. Clarey, T. 2015. Dinosaurs in Marine Sediments: A Worldwide Phenomenon. *Acts & Facts*. 44 (6): 16.
6. Clarey, T. 2017. Dinosaur Fossils Found in Marine Rocks...Again. *Creation Science Update*. Posted on ICR.org May 25, 2017, accessed April 18, 2018.
7. Dr. David Weishampel, e-mail communication with Dr. Carl Werner. Cited in Werner, C. 2007. *Evolution: The Grand Experiment*. Green Forest, Arkansas: New Leaf Press, 126.
8. Morris, J. D. 2000. What Would Need to Change for a Dinosaur to Evolve into a Bird? *Acts & Facts*. 29 (3).
9. Thomas, B. 2017. New Doubts about Dinosaur Feathers. *Creation Science Update*. Posted on ICR.org June 15, 2017, accessed April 18, 2018.
10. Clarey, T. 2017. Chicxulub Crater Theory Mostly Smoke. *Acts & Facts* 46 (6): 9.
11. Clarey, T. 2015. Dinosaur Fossils in Late-Flood Rocks. *Acts & Facts*. 44 (2): 16.

- 이미지출처 <https://www.icr.org/article/dinosaurs-appeared-abruptly>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질서있는 자연을 성경을 통해 다시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감동이 클수록 어께가 무거워지고 어그러진 교회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담감은 함께 커 갔습니다.

마지막날 위기가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골리앗과 같은 크고 무서운 기세로 개인과 교회를 공격해 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 박성애 < 샘물교회 >



신청하고 올 때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갑니다. 믿음의 현실성, 확실성, 말씀으로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성경을 부인하는 세상이운데 오직 말씀을 바로 알고 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최종무 < 시애틀 형제교회 >

제가 그 동안 얼마나 작은 틀 안에 갇혀 살고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깊에 퍼져있는지, 내 무의식 안에도 얼마나 많은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과 그 해답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송혜신 < 한성교회 (은평구) >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 창조의 역사를 추론과 추정이 아닌 성경의 진리에 의존하여 바라보게 되어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으로 인해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근거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와 은혜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진 목사 < 온누리 교회 >



진화의 반대는 창조인줄 알았는데 '성경'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너무 모르고 살았던 믿음 생활이 모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답이 성경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재정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윤영미 < 온누리교회 >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참으로 사실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찬신 < 온누리교회 >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사실을 보았고, 전능하신 종으신 분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처음이 좋았습니다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 베이직 교회 >



## 2019 ACT Schedule

|         |                              |
|---------|------------------------------|
| 1/2-5   | 창조과학탐사 (20차 유학생), 이재만        |
| 1/18-24 | 창조과학탐사 (대구성은교회, 행복사랑교회), 이재만 |
| 1/25-27 | 창조과학세미나 (LA충현선교교회), 이재만      |
| 2/16    | 창조과학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재만      |
| 2/17    | 창조과학세미나 (LA소망장로교회), 이재만      |
| 2/18-24 |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
| 4/5-7   | 창조과학세미나 (퍼듀한인장로교회), 이재만      |
| 4/8-18  | 창조과학탐사 (송현성결교회), 이재만         |
| 4/21-26 |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
| 4/27    |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